

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주요 농정 이슈

농업관측 시스템 개편
꽃 생활화 확대방안

거시경제 동향

201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

현장여론조사

(KREI 리포터통신원)

마을단위 공동사업 실태 현장여론

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연구 지원 정보

2013년 농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

동향 분석 실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농정 이슈_1

농업관측 시스템 개편

※ 본 자료는 2013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농산물 수급불안에 선제적 대응 위해 농업관측 시스템 개편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기본방향 및 목표

- **[기본방향]** 정확한 예측정보를 토대로 **상황분석-대책수립-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측정보 조사·분석·분산시스템 개선**
- **[목표]** **조기예측, 정확성 제고, 이용율 증진, 정책연계 강화**
 - (조기예측) 기상급변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
 - (정확성 제고) 상황에 부합되는 수급정책 수립·시행
 - (이용율 증진) 생산·소비자의 자발적 수급조절 참여
 - (정책연계 강화) 수급조절매뉴얼의 조기정착

□ 세부 방안

1) 조기예측 시스템 구축

- **[농산물 작황예측모형 정교화]** 현재 '쌀과 배추'에 대해 단수예측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나, 단기적 기상 변동 시 예측력이 낮고, 일부 품목은 모형이 없는 상황
 - (쌀·배추) 모형 정교화를 통한 단기적 기상변동 시 단수변화 예측능력 강화
 - (무·고추·마늘·양파) 금년 중 무 모형 우선 개발, '15년까지 모형 개발 완료
- **[축산물 관측모형 개선]** (현재) 분기단위 → (개선) 월 단위 예측모형으로 개선

2) 예측의 정확성 제고

- **[조사표본 확대 및 조정]** 조사표본 및 모니터 요원 확대(18천 명 → 23), 유관기관 해외 파견인력 등을 관측자문위원으로 활용
- **[관련기관·단체와 협조 강화]** 관측센터와 관련기관·단체 간 수급관련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 강화

- **[품목단체를 활용한 정보수집]** 관측정보 조사내용 중 일정부분(채소 저장량, 가축 폐사율 등)을 품목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측에 대한 책임성 공유
- **[전문가 확충 및 산지기동반 확대]** 경제학자 중심의 농업관측센터 인력풀에 곡물·원예·축산품목 및 모형전문 인력 확충('13년: 4명)

3) 관측정보 이용 활성화

- **[관측정보 모바일앱 개발]** 올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관측일보 제공
- **[품목단체를 통한 관측정보 분산]** 현재 관측센터가 제공하는 관측일보를 향후 품목단체에서도 동시 제공
- **[알뜰장보기 물가예보 활성화]** 이슈 품목에 대한 최적구매시가대체품목 가격 등의 분석정보 제공 강화
- **[농업관측지도 시범운영]** 주요 품목의 주산지를 클릭하면 해당지역의 작황, 출하동향을 볼 수 있도록 농업관측망에 별도의 콘텐츠 개발

4) 관측과 수급정책의 상호연계 강화

- **[중기선행관측 내실화]** 수급조절 매뉴얼을 운영하는 품목 중심으로 생산시기 이전에 예측가격 등 위기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보 사전 제공
- **[축산물 중기선행관측 품목 확대]** 현재 돼지와 육계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중기선행관측에 한우도 포함

<농업관측개요>

- **[대상품목]** 35개 품목
 - 국내 품목관측(31품목): 채소(10), 과일(6), 과채(7), 축산(6), 곡물(2)
 - 국제곡물관측(4품목): 옥수수, 대두, 밀, 국제쌀
- **[관측종류]**
 - 단기관측: 1~2개월 후의 수급·가격 예측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공표(35품목)
 - 중기선행관측: 3~6개월 후의 수급·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(10품목)
 - 장기관측: 5~10년 후의 수급·가격 전망 예측(매년 초 '농업전망' 발표)

주요 농정 이슈_2

꽃 생활화 확대방안

※ 본 자료는 2013년 7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꽃 소비, 경조사 위주에서 생활 소비로 전환, 꽃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추진배경 및 목표

- [추진배경] **국민 1인당 꽃 소비액**은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'05년 이후 감소하여 1만5천 원 수준이며, 소비 패턴도 경조사 위주(전체소비의 85%)에 머물러 있는 실정
 - ※ 1인당 화훼소비액: ('95) 11천 원 → ('00) 14 → ('05) 21 → ('11) 15
 - ※ 경조사 화훼소비 비율: ('80년대) 65% → ('90년대) 75 → ('00년대) 85
- **꽃 소비 활성화**를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으나, 경기침체 등으로 **성과는 여전히 미흡**
 - ※ 홍보사업비: ('09) 882백만 원 → ('10) 1,350 → ('11) 1,134 → ('12) 1,024
- 경기침체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웰빙, 로하스 시대에 부합 되도록 “꽃의 생활화 확대” 방안의 수립·추진 필요
- **[목표]** **국민 소득수준에 걸 맞는 꽃 생활화 확대**
 - ※ 1인당 꽃 소비액 목표: ('12) 15천 원 → ('15) 20 → ('17) 30

□ 확대방안

1) 꽃 생활화 기반구축

- **[소비자 접근성 제고]** 소비자를 꽃 생활화의 중심축으로 유인
 - 정보제공 기반구축, 꽃전용 판매매장 확대 구축, “꽃의 날” 운영 등
- **[미래소비자 육성]** 청소년 대상, 꽃 체험·교육 프로그램 운영
- **[원예치료 활성화]** 요양원, 소년원, 주부 대상 프로그램 운영

2) 꽃 생활화 장애요인 제거

- **[실내정원 관리 업체 육성]** 가정·사무실 꽃 생활화 확대를 위한 실내 정원 제품연구 R&D, 마케팅·운영자금 지원
- **[절화류 습식유통 활성화]** 대상지역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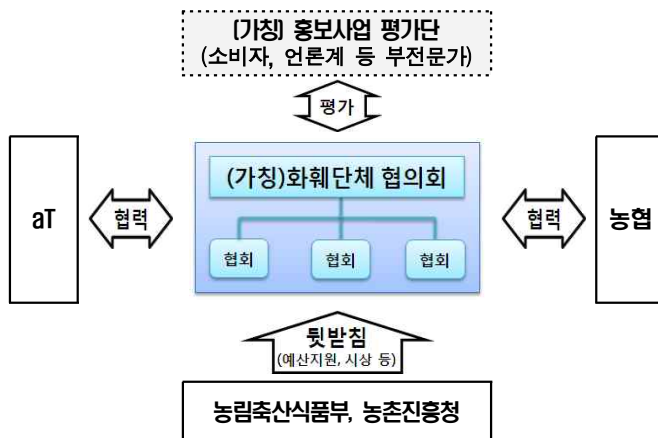
3) 꽃 홍보 효율화

- **[화훼가치 재조명]** 꽃의 기능성·감성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저명인사 및 파워블로거 기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
- **[화환 재사용 방지]** 화환 재사용 실태 고발 및 신화환 사용 홍보
- **[홍보방식 개선]** TV 프로그램에 스토리텔링이 연계된 PPL 홍보 등 적극 추진, 저비용·고효율 스타마케팅 추진
- **[이벤트·행사 효율화]** 각종 이벤트가 국지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,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도록 홍보방식 개선

4) 추진체계 정비

- **[화원]** 경영자 의식전환을 위한 착한꽃집 제도 운영, 화원 경영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리더육성(연 100명)
- **[단체]** Control Tower 구성(협의회) 유도, 단체 간 소통강화
- **[사후관리]** 홍보지원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제 도입
- **[포상]** '화훼대전' 개최, 경연대회 우수자에 참가자격 부여

<추진체계>



거시경제 동향

201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

※ 본 자료는 2013년 7월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전반적 동향

- **[소비자물가지수]** 107.2(2010년=100), 전월대비 0.1% 하락

※ 전년 동월대비 1.0%↑

<연도별 6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(2010=100, %)>

구 분	연도별 6월 동향					최근의 월별 동향		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	'12.12	'13.1	2	3	4	5	6
지 수	97.0	99.6	103.8	106.1	107.2	106.7	107.3	107.6	107.4	107.3	107.3	107.2
전 월 비	-0.1	-0.1	0.2	-0.1	-0.1	0.2	0.6	0.3	-0.2	-0.1	0.0	-0.1
전년동월비	2.0	2.7	4.2	2.2	1.0	1.4	1.5	1.4	1.3	1.2	1.0	1.0
전년동기비	3.3	2.8	3.9	2.7	1.3	2.2	1.5	1.5	1.4	1.3	1.3	1.3

- **[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]** 106.4, 전월대비 0.1% 상승

※ 전년 동월대비 1.4%↑

- **[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]** 105.5, 전월대비 0.1% 상승

※ 전년 동월대비 1.3%↑

- **[생활물가지수]** 106.1, 전월대비 0.2% 하락

※ 전년 동월대비 0.3%↑

- (식품) 108.2, 전월대비 0.8% 하락(전년 동월대비 0.1%↓)

- (식품이외) 105.2, 전월대비 0.1% 상승(전년 동월대비 0.4%↑)

- **[신선식품지수]** 106.4, 전월대비 5.3% 하락

※ 전년 동월대비 2.2%↓

- (신선어개) 112.2, 전월대비 1.1% 하락(전년 동월대비 0.8%↑)

- (신선채소) 87.5, 전월대비 10.9% 하락(전년 동월대비 1.7%↓)

- (신선과실) 120.7, 전월대비 3.4% 하락(전년 동월대비 4.2%↓)

- (기타신선식품) 108.6, 전월대비 4.5% 하락(전년 동월대비 3.7%↓)

□ 농축수산물 물가동향

○ [농축수산물 물가지수] 109.2, 전월대비 2.1% 하락

※ 전년 동월대비 2.3% ↓

- (농산물) 111.9, 전월대비 4.7% 하락(전년 동월대비 2.2% ↓)
- (축산물) 101.2, 전월대비 3.3% 상승(전년 동월대비 5.1% ↓)
- (수산물) 114.2, 전월대비 0.9% 하락(전년 동월대비 2.1% ↑)

<품목성질별 동향(2010=100, %)>

구 분	품목수	가중치	2012.6월				2013.6월			
			지수	전월비	전년 동월비	전년 동기비 (1~6월)	지수	전월비	전년 동월비	전년 동기비 (1~6월)
총 지 수	481	1000.0	106.1	-0.1	2.2	2.7	107.2	-0.1	1.0	1.3
농축수산물	71	77.6	111.8	-1.0	5.8	4.0	109.2	-2.1	-2.3	0.3
농 산 물	51	43.5	114.4	-4.3	14.4	10.2	111.9	-4.7	-2.2	2.4
축 산 물	6	22.1	106.6	7.1	-8.2	-7.5	101.2	3.3	-5.1	-5.5
수 산 물	14	12.0	111.9	-1.2	4.2	3.2	114.2	-0.9	2.1	1.7

<2013년 6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>

단위: %

구 분	전월대비	전년 동월대비
상승 품목	돼지고기(8.6), 호박(18.8), 무(12.4), 열무(11.1)	쌀(6.5), 양파(40.9), 바나나(34.5), 무(28.9), 배추(21.7)
하락 품목	양파(-31.8), 수박(-22.5), 배추(-21.4), 감자(-27.3), 토마토(-23.1), 파(-22.3), 참외(-17.8)	돼지고기(-13.6), 고춧가루(-18.2), 고구마(-35.7), 수박(-18.9), 감자(-38.5)

현장 여론 조사
(KREI 리포터통신원)

마을단위 공동사업 실태 현장여론

※ 리포트 전문은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(<http://reporter.krei.re.kr>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1) 조사 개요

- 수집기간: 2013. 6. 20 ~ 7. 3
- 수집대상: KREI리포터
- 수집방법: 온라인사이트, 이메일, 팩스, 우편 수집
- 접수건수: 23건

2) 주요내용

<마을단위 공동사업 실태 현장여론>

- 마을단위 공동사업 책임자 역할 중요
- 마을공동사업 주민들 스스로 계획하고 투자해야 성공
- 지도자 발굴, 사업추진체계 정비 등이 필요
- 상하수도, 쓰레기처리장 설치 등 마을공동사업 추진
- 지역의 특성 살린 마을공동사업 개발돼야

<기타 농촌현장 여론>

- 효율적 농지관리 위해 농지전용 규제 필요
- 새마을 도로사업 사유지 재정돈 요구
- 올 초 때 아닌 한파로 과수농가 동해 극심
- 농자재 구입 및 수리 전문센터 신설 요망
- 제조허가, 부품 규격화, 품질보증 등 농자재 취급규정 만들어야
- 농촌 인력부족 문제 심각
- 영양지역 고추가격 하락에 생산농가 '우려'
-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노력 시급

□ 마을단위 공동사업 실태 연장여론

○ 마을단위 공동사업 책임자 역할 중요

- 마을단위 공동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자의 의지와 이력, 자격심사를 충분히 해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.
<전남 완도, 박향숙>
- 마을단위공동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을단위공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하시는 분과 주민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, 마을단위공동사업에 관한 사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함.<경남 의령, 전연수>

○ 마을공동사업 주민들 스스로 계획하고 투자해야 성공

- 마을의 특성과는 별개로 주민 일부가 추진하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결여되어 운영이 지지부진하게 됨. 행정적인 편의나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 중점적인 지원을 받고, 주민들 스스로 계획하고 투자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.<충남 공주, 이봉룡>
- 정부 보조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을 주민이 일정 부분 부담해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함. 책임자 교체, 이익 분배, 내부 갈등문제 등은 규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, 지자체에서는 마을 공동사업 사후관리·감독 등의 역할을 하는 정도만 하면 좋을 것임.<경기 안성, 임충빈>

○ 지도자 발굴, 사업추진체계 정비 등이 필요

- 우리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과연 잘 추진되고 평가받고 있는지 의문임. 확실한 개인 농가를 선발 추진해 마을단위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<경기 안성, 이길숙>
- 농사만 짓다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재, 추진위원 부족, 내부갈등 등을 겪기도 함. 우수사례지역의 농산물 홍보, 마케팅 전략 등을 벤치마킹해 관광산업과 연계해 활성화해야 함.
<경북 영주, 김기원>

- 사업 선정이나 사업추진 전에 교육을 통한 훈련된 지도자를 발굴하고,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개별적·산발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도·시군 단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·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야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임.<경기 안성, 임충빈>

○ 상하수도, 쓰레기처리장 설치 등 마을공동사업 추진

- 우리지역에서는 마을공동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완공했으며, 곧 관공서 예산을 지원 받아 쓰레기 공동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임. 폐가를 리모델링 하여 낡은 집에 사는 독거노인, 귀농자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.<충남 부여, 최영호>
- 우리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을 결혼피로연, 장례식장 등으로 공동 사용하고, 감귤을 선파하는 시설 운영 및 운송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어 마을공동사업은 주민 간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어 잘 운영되고 있음.
<제주 서귀포, 김상우>

○ 지역의 특성 살린 마을공동사업 개발돼야

- 전국 수많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가운데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적음. 다른 동네의 성공사례만을 그대로 전수해 오려 하기 때문임. 지역만의 특색 없이 추진하면 앞서 잘하던 사업까지 실패할 수 있음.<강원 영월, 유영조>
-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장기간이 필요할 것임. 어린이 학습장, 관광농원, 신토불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농촌공동생활상을 만들어 지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면 좋겠음.
<경남 김해, 김병철>

□ 기타 농촌연장 여론

○ 효율적 농지관리 위해 농지전용 규제 필요

- 영농이나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가옥, 축사, 기타 시설 등을 우량 농지 가운데 설치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.<경기 안성, 임충빈>

○ 새마을 도로사업 사유지 재정돈 요구

- 1970년대 새마을사업 중 마을별로 안길을 넓히기 위해 개인이 내놓은 것은 공보상 현재까지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확장 등 측량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, 부당하다고 생각함.<경남 고성, 정동연>

○ 올 초 때 아닌 한파로 과수농가 동해 극심

- 한창 꽃이 피고 수정이 될 즈음 4월에 눈이 내리고 저온현상이 지속 되더니 복숭아, 자두, 매실을 비롯한 각종 과수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 올해 과수농사는 흉작이 예상되고 있음.<충남 부여, 최영호>

○ 농자재 구입 및 수리 전문센터 신설 요망

- 농자재 구입은 주로 농협을 이용하나 농협은 비료, 농약, 비닐 등 농사에 필요한 소형 자재만을 판매함. 리어카, 사다리 등을 구입해도 고령의 농업인들은 별도 운임을 주고 배달해서 사야하는 불편함이 있음.<경북 청송, 박생순>
- 동종의 기계인데도 회사마다 부품이 달라 농기계 수리가 어려움. 품질은 다르더라도 부품의 규격을 동일하게 한다면 다른 회사 부품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임.<경북 영양, 김갑순>

○ 제조허가, 부품 규격화, 품질보증 등 농자재 취급규정 만들어야

- 농자재는 제조, 판매, 유통업체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 허술하거나 불량한 제품이 많음. 제조허가를 받아 제품마다 규격화, 품질보증 제도를 도입해 불량제품에 대한 보상 및 환불조건을 갖춰야함.<경남 거창, 김정오>

○ 농촌 인력부족 문제 심각

-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아 해매는 실직자가 1만1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. 실직자를 농업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.<경기 화성, 이윤현>

- 요즘 농촌에서는 작업인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1인당 하루 인건비는 95,000원에 달하고 있음. 마늘, 양파가격은 수직하강하고 있는 반면, 인건비는 수직상승하고 있으니 농번기 농촌일손대책을 마련해 고용비용을 줄여야 함.<대구 달성, 곽동준>

○ 영양지역 고추가격 하락에 생산농가 '우려'

- 영양지역의 주 품목인 고추 값이 계속해서 하락해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. 곧 수확해야 할 품목으로 배추, 마늘, 양파, 감자 등인데 어느 것 하나도 싼통한 품목이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울상임.<경북 영양, 김갑순>

○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노력 시급

- 소비자가 원하는 다품목 농산물을 한 생산자가 다량 생산해 공급할 수 없으므로 농협의 유통역할이 더욱 중요함.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중간상인의 이익을 줄여야 함.<전남 나주, 노웅곤>
- 통계자료 활용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물량을 조절해서 농산물을 생산 하면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농가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임. 산지 수집회사를 만들어 회원관리를 통해 직거래를 가능케 하고 체험농장이나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소비자단체와 연결하면 좋겠음.<전북 남원, 권승룡>
- 완주군 용주농협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로컬푸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. 지역마다 로컬푸드 제도를 확산해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함.<부산 기장, 최시훈>

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※ 본 자료는 7월 1일~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·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안·중 FTA ‘높은 수준’ 추진...협상 가속화 전망

- 박근혜 대통령·시진핑 중국국가주석, ▲6.27일, 베이징서 정상회담... ‘미래비전 공동성명’ 발표.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**기존 경제·사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**하는 동시에 **새로운 협력분야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**하기로. (현재 진행 중인) 한·중 FTA 모델리티(기본 지침)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평가 및 한·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 강화. 이에 따라 **개방 폭 확대, 협상 가속화** 전망. ▲7.2일, **한·중 FTA 6차 협상** 시작, 사흘 간 ‘민감 품목’ 협상 돌입*. (한국) 국내 농수산 분야, 의류, 운송장비 등에서 피해 예상, (중국) 자동차, 섬유, 화학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분석. **민감품목 지정 여부가 핵심 쟁점**으로 예상되지만 진전 있을 것으로 기대. ▲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...협상이 열리는 호텔 부근에서 **한·중 FTA 중단 촉구 대규모 집회** 및 **농업예산 확보 및 식량주권 수호 등의 요구가 담긴 결의문을 한·중 FTA 협상단에 전달**

※ 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5차례 협상을 통해 원산지, 통관절차, 무역 원활화 등 일부 분야의 협상 기본지침 합의했지만 상품 분야 개방수준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 커

자료 : 농민신문·농수축산신문(2013.7.1) / 동아일보 서울신문(2013.7.3) / 한국농어민신문(2013.7.4)

□ 콩·옥미 등 잡곡 가격 급등...밥상 물가 비상

-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‘볼라벤’의 영향으로 **콩, 팥, 흑미 등 대표 잡곡 가격 큰 폭으로 상승**해 밥상 물가에 비상. 서울 가락시장 (7.2일)에 따르면 지난달 말 ▲**콩(70kg.상) 가격**...82만 원으로 작년 동기 가격인 63만 원에 비해 **30.2% 상승**. 해마다 줄고 있는 재배면적과 주요 산지 중 하나인 호남 농가의 상당수가 지난해 입은 태풍 피해 탓. ▲**흑미(80kg.상) 가격**...지난해 24만7,500원에서 34만6,250원으로 **39.9% 상승**. 이 역시 전남 진도와 충북 진천 등의 흑미 농가가 태풍 볼라벤의

여파로 수확 감소. ▲**팥(80kg.상) 가격**...작년 동기대비 지난달 말 **6.2% 오른 94만 원** 기록해 **다른 잡곡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**. 팥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은 팥이 전국 대부분에서 재배되기 때문. 이 같은 상황에서 **올해도 많은 비와 늦여름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**돼 **국내산 잡곡 가격 추가 인상 우려**

※ 경기미 기준 쌀(20kg)의 가락시장 도매가격 5만3천500원. 밥 한공기를 평균 200g(쌀 100g 콩 30g·팥 30g·흑미 40g 기준) 가량으로 조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밥 한공기 가격이 올해는 1천144.1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.2% 상승

자료 : 내일신문·연합뉴스(2013.7.2) / 파인넷뉴스·SBS보도(2013.7.3)

□ 농업 정책자금 고이율, 농민 어리 원다

- 농업정책자금 이자가 타부처에 비해 **고이율**. 현재 농식품부 소관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**3% 유지**하는 반면 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안전관리사업의 경우 **1.75%**,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 정책자금의 경우 **2.1%** 등 상대적으로 **농민들 부담이 큰 상황, 형평성 어긋나**.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·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·(사)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, 6.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연명으로 발표, 제주농민들의 심경 대변, **제주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부채 기록**

※ 미국 농업정책자금 평균 금리 1%, 프랑스 2%, 일본 0~1.6%. 이에 따라 제주 농업인 단체들은 ‘농업정책자금 1% 수준 인하’ 주장

자료 : 한국농정신문(2013.7.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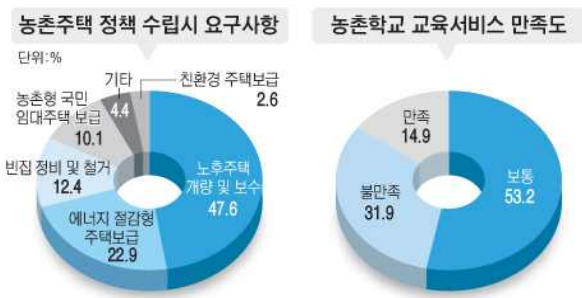
□ 농식품부, 농작물 재해보험 알증률 최소와 적극 검토

- 지난해 태풍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은 농가들의 올해 **재해 보험 보험료에 할증이 적용돼 불만** 고조. 이에 농식품부, **할증율 최소화 등에 대해 적극 검토**. 올해 상반기 주요 품목 재해보험 판매 결과 전년대비 보험율이 과수 5개 품목이 34% 인상. **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은 할증도 있지만 표준가격과 표준수확량 등 보장수준 확대**, 최근 **손해율을 반영한 기본 보험요율 인상** 등이 포함됐기 때문. 현재 자연재해 특수성, 농가별 할증율 적용방식 등에 대해 **연구용역 발주해 용역이**

완료 되는데도 보험료 체계 개편. 한편, 재해보험 조사 전문인력도 도입할 계획. (현재) 농업인과 농협 직원 등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 → (계획) 손해평가사 시험을 통과한 손해평가사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손해평가인으로 구성

자료 : 원예산업신문(2013.7.3)

□ 농촌주민 30% “의료비 가장 부담 돼”



- 농촌진흥청, ‘2012 농촌생활지표조사’*, ▲**농촌주민에게 가장 부담되는 지출은 의료비(30.2%)**. 이어 주거비(20.4%), 공과금(16.1%), 교육비(9.6%), 식비(9.4%) 순. 88.7%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1~2년에 한번 이상 83.3%, 3~4년마다 4.6%, 5~6년 0.8%. 검진을 거의 받지 않는 경우 11.3%. ▲**농촌학교의 교육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절반 이상이 보통(53.2%)**. 만족(14.9%)보다 불만족(31.9%)이 두 배 이상 높아. ▲**집안일은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85%**. ▲**주거유형...89.8%가 단독주택에 거주**, 주택 노후 정도는 지어진 지 평균 27.9년 됐고 11년 이상 된 비율이 80.3%. ▲**농촌주택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요구사항...노후주택 개량 및 보수가 47.6%**. 그 뒤를 이어 에너지절감형 주택보급(22.9%), 빈집정비 및 철거(12.4%), 농촌형 국민임대주택 보급(10.1%) 등 순

※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

자료 : 농민신문(2013.7.3)

□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, 농가 평균 수취가격 1,000원대 돌파

- **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*의 첫 시행** 확정으로 **농가 평균수취가격 ㄹ당 1,000원대 돌파** 전망. 이에 따라 농가 평균 수취가격은 현행 ㄹ당 990원 → 1,096원 약 10.7% 증가 예상. 이와 같은 원유기본가격 상승에 업계는 연동제 시행의 당연한 결과라고 수긍하면서도 **향후 제품값 상승에 따른 소비부진 우려**

※ 낙농진흥회, 6.27일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, ‘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’에 따라 산출된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현행 ㄹ당 834 대비 12.7% 인상한 940원으로 조정, 8.1일부터 적용

자료 : 농민신문·농수축산신문·한국농어민신문(2013.7.1)

□ 안·육우 수급조절협의의 첫발

- **한·육우수급조절협의회 제1차 회의** 개최, **협의회장 선출 및 농식품부 주요 축종별 협의회* 운영방안 공개**하면서 **수급상황분석·대응방안 협의·산업발전방안 논의** 등의 업무 추진. ▲**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안(미확정)...**협의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**축산물의 수급안정 정책, 산업발전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**을 위한 것으로 △**축산물 수급상황 분석**, △**수급상황별 대응방안**, △**수급안정대책 추진**, △**축종별 산업발전 방안**, △**장관 요청 또는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** 등에 대해 장관과 관련단체 등에게 의견 제출. ▲**협의회 구성...**협의회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에서 당연직과 선정직 위원***. ▲**운영 절차...**생산자단체에 설치되는 사무국 안전 제출 → 수급조절협의회 점검 → 위원 2/3이상이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전 의결 → 의결된 안전은 농식품부 생산자단체에 의견으로 제시 → 제시된 의견 검토해 (농식품부) 지원여부 결정, (생산자단체) 시행

※ 한·육우(사무국 한우협) 돼지(한돈협) 닭고기(닭고기자조금) 산란계(양계협)·낙농(낙농진흥회) 오리(오리협) 등

※※ (당연직)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, 농경연 축산관측담당,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담당 상무, 해당 축종의 생산자 단체장, 낙농진흥회 회장, (선정직) 유통·가공 업계 대표 및 소비자단체 대표, 전문식견을 가진 재(학)계 및 연구계

자료 : 한국농어민신문(2013.7.1)

□ 하반기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-농식품·복지·문화·국토·기타

- 기획재정부, 6.27일,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이 이달부터 완화,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도 새로 도입 등 내용 담은 **‘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** 자료집 발간

[농식품·보건복지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]

○ 농식품...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

- 농작물 22품목, 임산물 3품목,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에 풋고추·애호박·국화·장미 등 4개 추가, 전국사업품목이 모두 44개(12월~)
- 배는 태풍·강풍·우박·동상해와 같이 특정재해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개선(11월~)

○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 완화(7월~)

-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(이차보전)을 받으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, 다른 정책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한도액(창업 2억 원, 주택 4,000만 원)까지 신청 가능

○ ‘수의사 처방제’ 시행...일부 동물용의약품, 수의사 처방 받아야(8.2일~)

-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(마취제·호르몬제·항생제·백신 등) 대상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·투약, 처방전 발급 후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입

○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,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년 변동 때마다 농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이 연 1회 정기보고 방식으로 조정(10월~)

○ 농촌진흥청,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농산식품, 사료·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검정 수수료를 소폭 인상하는 대신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해 농업인은 수수료 50% 감면(7월~)

[보건복지·문화]

○ 치석제거·부분틀니에 건강보험 적용(7월~)

- 치석제거 시술 때 연간 1회(만 20세 이상 대상)에 한해 보험 적용,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부분틀니도 새롭게 보험 적용

○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돼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 크게 줄 전망(10월~)

- 희귀난치질환의 범위가 현행 107개에서 다제내성결핵 등의 질환이 추가돼 142개로 확대
-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(의료급여 수급자) 진료비 지원 확대로 수급자의 부담이 완화

○ 치매·중풍노인 장기요양서비스 확대(7월~)

-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...치매·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
- 잦은 갱신조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

○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의 이용 신청자격과 대상 서비스 확대(7월~)

- 가구단위로 이용하는 유선전화(시내·시외·인터넷전화)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자격이 장애인·전상군경 등 해당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
- 장애인, 전상·공상군경,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월부터 휴대인터넷(와이브로)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% 감면

[국토·환경, 기타]

○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·의무의 승계절차 구체화(11월~)

- 지하수 개발·이용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합병, 경매·압류재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 인수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권리·의무 승계 신고

○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 이용(11월~)

-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는 버스·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,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

자료 : 농민신문(2013.7.1)

연구 지원 정보

2013년 농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

※ 본 자료는 2013년 7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농촌공동체회사,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조사개요

- [농촌공동체회사]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지역자원을 활용하되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
 - ※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, 경북 안동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(복지서비스 제공), 경기 양평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(체협) 등
- [조사목적] 농촌공동체회사 현황을 파악하여 우수사업 지원 등 공동체 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
 - 농촌마을 활성화, 농가 소득 증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, 경영전략 컨설팅, 홍보·마케팅 전략 수립 등 자료 활용
- [조사내용] 지역별 농촌공동체회사 현황과 공동체회사별 매출액, 고용 인원, 사업유형 및 구성원 범위 등
- [조사대상지역] 전국 139개 시·군(군 85, 도농복합시 52, 제주 2)
- [정책반영] 발전가능성이 큰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하여 공동체회사 역량강화 교육, 경영전략 컨설팅,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
 - ※ '13년 지원규모: 54개소 1,350백만 원(개소 당 국비 25백만 원)
 - '14년부터 영세 고령농, 다문화가족 등 농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적극 발굴·육성할 계획

□ 조사결과

1) 농촌공동체회사 현황

- [개소 수] '10년 첫 실태조사 이후 농촌공동체회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'13년 총 725개소 운영
 - ※ ('10) 219개소 → ('11) 443 → ('12) 650 → ('13) 725

- [매출액] 8,015억 원, '11년 6,716억 원 대비 19.3% 증가

-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소형 공동체회사 감소

※ ('12) 60% → ('13) 50

- [고용인원] 15,964명, 전년(14,613명)대비 9.2% 증가

2) 조직형태와 구성원 범위

- [조직형태] 농업법인이 461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(63.6%) 차지, 정관 규약에 의해 운영되는 임의단체의 비중은 감소('12: 32.2% → '13: 23.2)하여 농촌공동체회사가 점차 조직화
- [구성원 범위] 마을단위 공동체회사가 410개소로 높은 비중(56.6%)을 차지 하고 있으나, 읍·면 단위 이상의 공동체회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
3) 활동유형

- 농식품산업형과 지역개발형은 증가한 반면, 사회복지서비스형, 복합형은 감소하여, 이에 대한 대책 필요
 - 농식품산업이 가장 큰 비중(55.0%) 차지, 이어 도농교류형(28.1%), 복합형(6.5%), 지역개발형(5.3%), 사회복지서비스형(5.1%) 순
 - 농식품산업형(305 → 399개소)과 지역개발형(32 → 38개소)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, 도농교류형(220 → 204개소), 사회복지서비스형(39 → 37개소), 복합형(54 → 47개소)은 감소
 - 농촌의 복지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형 공동체회사를 집중 발굴·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